

社 說

민족민주 주도할 인물나와야 21대 총선거 東岳단의 문제 아니다

제21대 총선거의 정·부회장 선거가 임박한 앞으로 성급하게 가자. 지난 20일 1차 유세차 치루어졌고 이제 2·3차 유세와 공개토론회를 제외하면 28·29일의 투표절차만이 남았을 뿐이다.

이번 선거에서 우려되는 것은 유권자들의 관심과 참여가 저조하게 비추어지는 것이다. 예년에 비해 선거 분위기가 살아나지 않아 앞으로 총선거의 출범이후와 사업진행에 있어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현실적으로 총선거 위상이 자치기구로서의 차원에 국한되지 않고 학내에 대한 요구되는 다기한 문제에 대한 주체적 역할 또한 막중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한해 포연상의 과제만 하더라도 학외적으로는 혼란이 예상된다. 시기상의 이유로 연기를 선한 현정권의 중간선거와 오는 7월 평양에서 개최되는 제13차 평양 청년학생총회, 학내에서는 지난해 학자투의 재수선상에 있는 교과위 개편과 다가오는 총선거에 대한 민주적 제도 마련 등이 대과 산출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올바르게 수행할 책임과 역량이 있는 인재를 선출하는 과정에 유권자들의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참여가 강조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선입생들은 가장 높은 참여를 보이면서도 유

동포의 상당수를 점하고 있어 선입생 각자는 각 후보자들의 차이를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요구된다 하겠다.

한마디로 총선거 선거는 한편의 축제여야 한다. 잔뜩 긴장해 있는 3월의 후보자들을 비롯한 전 동족인이 하나로 뭉쳐 함께 할 수 있는 대동단결의 기운이 피어날 것이다. 이는 무분별한 대동단결도 삼가해야 할 사항이지만 실천적으로 축적된 이론인 대동단결을 확고히 구축해야 하는 책임감이 앞선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선거전 자체가 각 후보자들에게 대한 올바른 비판과 과정이 병행되어야 하며 단순히 이익의 소비가 아닌 이후 사회개혁 진흥에 있어 도약의 발판이 되어야 함은 당연한 사실이다.

유달리 각종 악성부머가 잦은 이번 선거를 통해 개탄하면서 각 후보자들에게 요구되지 않는 선거운동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왜곡된 사 회현실을 바라보며 진리탐구의 장에 위치한 대학인에게 요구되는 소명감을 지속적으로 일깨워 주며, 철학같은 어둠속에서도 동물을 불사하며 이곳저곳을 날아다니는 작은 반딧불과 같이 이시대의 새벽 길을 재촉하는 신념이 찬 후보자와 유권자들에게 각 자들이 지켜낸 대동단결의 기운이 함께 할 것을 거듭 당부한다.

이제 본질은 드러났다

개량민주화조차 기대할 수 없어 허탈

조기중간선거를 위한 국민투표가 「3·20담화」로 무기한 연기되었다. 형식상으로는 연기라고 표현되지만 사실상로는 폐기나 다름없는 노태우의 담화는 국민에게 커다란 놀라움과 분노를 안겨주었다.

새해들어 계속 정국의 「태풍의 눈」으로 작용해 온 중간선거는 그 시작은 물론 진행과정 또한 상당히 왜곡된 기만적인 것이었다.

중간선거에 대한 발상은 87년 12월 대통령선거를 사활 안 두고 총리를 집권할 수 없는 불안한 상황에서 입안되었으나, 초헌법적인 것은 물론이고 노태우정권 스스로가 자신의 정권을 과도정부가 규정하는 교육개혁의 하나였다. 이것이 여론의 호응을 얻기에는 충분했다.

하지만 잘못된 발상에서 시작된 공약이 일관성을 지닐 수 없는 것이다.

현정권은 중간선거에 대한 관점을 자방의 실리추구에 두고, 그것을 정당적으로 이용했다. 대표적으로 이번 중간선거가 무기기가 이러한 관점에서 행해졌다.

책임분담을 둘러싸고 야당의 보수성을 전연내려버리는 시도라든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정도로 혼란이나 안정을 하나를 선택하라는 식의 일방통행 또한 현정권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89년도 대학의 불확실성은 학원의 민주화와 자율화를 위한 일련의 운동과 함께 시작되고 있다. 이 운동에서의 구체적인 정점은 총장선출에서의 학생참여와 등록금 동결문제이다.

우선 첫째 문제에 관해 대립되고 있는 견해들을 보면 몇몇 대학의 재단과 대학본부, 또는 해



李相信 <고대교수·서양근세기>

당대학의 평교수협의회는 총장선출은 교수들의 고유권이며 학생들의 참여요구는 교권침해라고 규정하고 있다. 어떤 대학의 재단은 교수들의 이해 선출된 총장까지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런가 하면 학생들은 총장이 대학의 모든 구성원들의 대표이므로 그 선출과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교수들과 학생들의 공동참여 속에 총장이 선출된 경우도 있다. 다만 문교부가 이를 승인하지 않고 있을뿐이다.

총장선출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국립대학의 경우에는 문교부가 아닌 총장에게까지도 하지 않았던가!

학생들에게도 총장선출에 대한 「歷史的」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즉 피차에 역사적

총장선출, 교수만의 권한일수 없어

학생의 참여요구를 교권침해로 매도 등록금동결의 필연성 제대로 인식해야

학생들의 참여요구가 교권침해라는 교수들의 주장에도 역시 근거가 없다. 학생들의 요구는 단순히 이해관계적인 요구가 아니라 '특권권력의 횡포로부터 대학과 교원을 지키지 못했던 나약한, 때로는 비굴했던 교수들이 학문의 사상의 자유를 위한 강한 독자적인 태도를 세우는데 돕겠다는 뜻을 지니고 있으며, 민주시대를 육성하는 작업과 산업사회의 발전에 대한 궁극적으로 가장 큰 책임을 지어야 할 계층이 되게끔 기대된다. 그들 교수들은 큰

학문의 사상의 자유를 위한 강한 독자적인 태도를 세우는데 돕겠다는 뜻을 지니고 있으며, 민주시대를 육성하는 작업과 산업사회의 발전에 대한 궁극적으로 가장 큰 책임을 지어야 할 계층이 되게끔 기대된다. 그들 교수들은 큰

학생의 참여요구를 교권침해로 매도 등록금동결의 필연성 제대로 인식해야

30년동안이나 군사독재정권이 지속되어 왔고, 불행히도 배급주의가 반민주주의적으로 치솟아 왔고, 결국 국민심리의 파탄현상마저 일어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무엇이 있었는가?

그들이 도피적이었던 것은 본래였고, 체제유지책임을 분담이 아니라 옹호적이지도 못하지 않았던가!

학생들에게도 총장선출에 대한 「歷史的」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즉 피차에 역사적

한 견해가 속출하는 것이 어찌 보면 불필요해 보일 수도 있고 때로는 편한 말잔치처럼 여겨질 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다양한 여러 학파의 학문논쟁은 학문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영감소임을 간파해선 안 될 것이다. 각 학파간의 논쟁이 변증법을 이룰 때 학문은 또다시 발전하는 것이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문화의 참여·순수 논쟁은 민족문화이라는 새로운 장을 열어 놓았다.

이처럼 학파라 하는 것은 논쟁을 즐기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학문의 발전을 위한 것이 다. 그렇다면 학파의 유의미성은 충분할 것이다.

그렇을 때 우리의 주위를 둘러보자. 우리의 살아남아 관련 학파라는 것이 존재하는가. 아니면 그러한 것이 존재할 수 있도록 조

학교·교수사정 있다지만 이해곤란 현행제도상 문제라면 검토보완을

조정을 통해 신청하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학생들의 수강신청과목이 중도에 임의적으로 담교교수가 바뀌거나 또는 교수개인이 사정에 의해 강의시간이 변경되는 점들이다.

결과적으로 학생들은 자신들의 강의시간이 변경되는 점들이다.

결과적으로 학생들은 자신들의 강의시간이 변경되는 점들이다.

안 그래도 불만족스런 강좌현실

임의변경까지 찾아선 "행포"

학문사회에서는 같은 문제를 놓고 여러가지 견해를 달리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견해차가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고 나름대로 논리와 체계를 갖추고 하나의 학설로 자리



한 견해가 속출하는 것이 어찌 보면 불필요해 보일 수도 있고 때로는 편한 말잔치처럼 여겨질 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다양한 여러 학파의 학문논쟁은 학문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영감소임을 간파해선 안 될 것이다. 각 학파간의 논쟁이 변증법을 이룰 때 학문은 또다시 발전하는 것이다.

나타나지 않고 있다.

총장선출과 학사운영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요구가 현재의 바로 이 시점에서 대두된 것은 지금까지의 대학운영이 보여준 불합리하고도 불명확한 모습때문이다.

다시말하자면 그들의 요구는 비록 전통을 배경으로 하는 역사적 근거는 갖고있지 못하지만, 그 나름대로 현실적인 필요적근거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

바로 그러한 점에서 얼마전에 중앙대학교 한양대학교를 비롯한 19개 사립대학교 평교수협의회 회장들이 학생들의 참여요구를 당연한 것이라고 선언했던 것이다.

민주화와 자율화에로의 전환시기에 즈음하여 그러한 인식을 함게 하지 못하고 있는 여타대학의 교수협의회 회장들이나 민중회의 학생들의 참여가 배제되도록 적극 유도하고 있는 문교부의 태도는 실로 반사회적 지위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었다.

학생들이 제기하고 있는 또 하나의 정당한 등록금 동결문제도 역시 대학의 자율화와 민주화의 과제를 실현시킨다는 차원에서 속고되어야 한다. 대학당국은 틀거 상공과 대학발전이라는 이유로 등록금인상의 불가피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등록금을 주장하는 학생들의 주장에도 충분한 이유가 보인다. 다른아니라 이유는 재정적 주로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으면서도 재정공백을 지 않고 있으며, 더우기 입학사정과 등록금 납부에 있어서 학부도들의 신분, 또는 집안 배경을 불평등하게 구분하면서 등록금에서 특수 혜택혜를 인정하고 있다. 실로 국민들의 원익이 갖히고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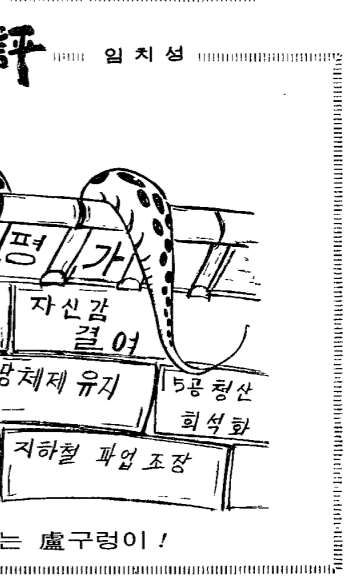
더욱 나아가서 등록금에 대한 국가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 사회의 각 영역분야들과 집단들을 불합리한 기준으로써 차등적으로 구분하면서 불평등하게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학생들의 등록금 동결주장은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일이다.

문제점들만 학생이 제기한 요구 때문도 아니고 학생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도 아니다.

또한 그들의 요구는 총선을 위한 도구로 전락되고 있는 대학이 교육에 있어서의 국민평등의 원칙을 무시하면서 특권·부유·특수계층에 부분적이나마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는 불합리한 모습을 정화하고자 하는 의지도 내포하고 있다. 그동안의 대학의 전략현상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수들의 책임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겠다는 뜻도 지니고 있다.

또한 그들의 요구는 총선을 위한 도구로 전락되고 있는 대학이 교육에 있어서의 국민평등의 원칙을 무시하면서 특권·부유·특수계층에 부분적이나마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는 불합리한 모습을 정화하고자 하는 의지도 내포하고 있다. 그동안의 대학의 전략현상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수들의 책임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쯤 들어라도 한 강좌편에 여러개의 강좌를 개설해서 학생들의 등록금을 낸 만큼의 다양한 학습을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종류의 강좌만 하더라도 여러 시간대에 배치해서 학생들의 향유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수강신청을 할 때 학생들 사이에서도 나름대로 학과와 학과를 형성해서 강의시간 안팎에서 학문토론으로 강의시간이 연장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손 정 규 <사범대 국교과>

공 고

부전공 이수 신청 접수

1989학년도 부전공 이수신청 접수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니 부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기일을 엄수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신청서 접수기간: 89년 3월 22일(수)~3월 28일(화)
2. 신청방법: 부전공 이수신청서에 부전공 학과간의 승인을 받아 소속 교과과에 제출한다.
3. 신청자격: 1981학년도 이후 입학자(법과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상대학은 80학년도 입학자를 포함)로 현재 2학년 재학생 및 급학기 2학년 복학생.

조기 졸업 신청 접수

1989학년도 조기졸업 신청접수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니 조기졸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기일을 엄수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신청서 접수기간: 89년 3월 22일(수)~3월 28일(화)
2. 신청방법: 조기졸업 신청서를 소속 교과과에 제출한다.
3. 신청자격: 가. 1981학년도 이후 입학생으로 초과학점을 취득하고 7학기 등록을 필한자.
- 나. 4학년 1학기 수강신청 학점을 포함하여 140학점 이상이고 7학기 평점평균이 4.0이상이자.

1학기 추가시험 실시

1989학년도 제1학기 추가시험을 다음과같이 실시함.

다 음

1. 원서교부 및 접수: 89년 3월 27일(월)~3월 30일(목)
2. 교부원칙: 학과(과) 내부(과) 교과과
3. 시험실시기간: 89년 4월 3일(월)~4월 7일(금)
4. 응시자격: ①해당학기 2학기 이상 출석하고 기말시험을 또는 시험결과에 입내내 자로서 급학기에 복학한자. ②기타 해당자.

공 무 처 장

납입금 수납 연장안내

1989학년도 제1학기 학부 재학생 납입금을 아래와 같이 연장 수납합니다.

아 래

1. 수납기간: 1989년 3월 20일 ~ 3월 24일 (5일간)
2. 수납처: 조흥은행, 국민은행 각지점
3. 수납방법
 - ① 학교에서 우송된 고지서로 납입하여야 함.
 - ② 장학금 수혜자중 고지서에 납입금액이 전산으로 감액처리된 학생은 수납은행 전국 각지점에 납입할 수 있으나, 감액 처리되지 않은 학생은 장학금 지급의뢰서와 함께 아래의 별도 지정수납처에서 감액수납하여 납입하여야 함.

<별도지정 수납처>

서울캠퍼스: 조흥은행 종로지점
국민은행 충무로지점

경주캠퍼스: 경주캠퍼스 경리과

4. 유의사항
 - ① 전산처리된 납입금 고지서는 재발행이 불가능하므로 분실, 오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② 수납기간이 경과되면 은행에서 수납하지 않으므로 기간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③ 기타 문의사항은 학교 경리과로 하시기 바랍니다.

1989년 3월 20일
총 무 처 장

공 고

본 고시지도위원회에서는 고시반 운영 및 고시준비의 지도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합니다.

1. 장학생 선발방법 변경

학 연	1·2년	3·4년	1·2년	3·4년
장학생 선발비율	100%	100%	100%	100%
국가고시 성적			100%	100%

① 3·4학년의 경우는 국가고시 성적에 의해 1년(2학기) 동안 선발한다.

② 1·2학년은 (8월 20일) 과 (2월 20일) 경에 실시한다.

2. 시험과목

1학년	제1학기	제2학기
1학년	외국어·국사	
2학년	외국어·민중·경제학	외국어·국사

3. 장학혜택

① 국가고시 1차 합격자 및 고시장학생 (수업료 전액 30명, 수업료반액 30명)은 입학할 수 있으며 고시열람실 및 고시관련 모든 시설을 및 고시자료 등을 사용할 수 있다.

② 고시장학생은 본 고시지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고시특강, 모의시험 등에 수강 및 응시할 수 있다.

4. 참고사항

① 89학년도 3·4학년 2학기 장학생 선발은 89년도 총무처에서 실시하는 국가고시 1차 성적 (사범고시 5월 7일, 행정고시 6월 11일, 외국고시 1월 17일)에 의거 선발함.

②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시지도위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267-8131~9 교민 2631)

고 시 지 도 위 원 회

제1기 자동판매기운영요원모집

드거웠던 88년, 학원 자주화 투쟁의 성스러운 기치를 함께 올렸던 동학의 1만 학우 여러분!

드디어 여러분의 대동단결 대동투쟁으로 얻어낸 자판기의 운영권을 글린 4월부터 학생복지위원회에서 관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자판기는 공정성, 공개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관리 운영되어야 하며, 그 수익은 전액 학우들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되돌려져야 합니다.

이에 학생복지위원회에서는 자판기를 함께 관리 운영할 원생적이고 책임성 있는 운영 요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다음—

○ 신청서 접수 및 배부: 학생과 부직관리부

○ 제출서류: 학부부 단건 과제증명서 1부
신청자 주민등록 등본 1부
재학증명하는 서류 1부
소정의 신청서 1부

○ 근로대우: 월 12만원

○ 근로기간: 89년 4월 ~ 89년 8월 (5개월)

○ 신청서 접수기간: 3월 20~3월 27일 오후 5시까지

○ 합격자 발표: 3월 28일 오전 10시 중앙대자보판.

○ 합격자 교육기간: 3월 29일~31일 (오후 5시~7시) 3일간

※ 특별사항

1. 다음 대상자는 심사 대상이 되지 못함
 - 휴학자 및 해당학기 장학 수혜자
 - 서부미비자
2. 특이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특별 심사항에 열세면, 전체지부의 피해자를
3. 합격자는 필히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1989년 3월 일
학생 복지 위원회

특별좌담

민주집중제로 학생회체계강화 기약

▲사회=제21대 총학생회장 출마후보로서 학교발전을 위한 학교외상에 관하여 토론했고, 유권자에게 가치관과 근거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이번 자리를 마련하였습니...

▲이기재=저희 기호1번은 20대 총학의 명확한 평가를 통해 발전적 방향을 제시하고 민주집중제, 공개제의 실현을 통한 학생회의 강화에 복무하고자 출마했습니다...

▲김성규=저희 기호2번은 20대 총학에서 일정정도 이룩한 단결의 기운을 보다 절실한 단계로 승화시키고 이후 안정된 회체계를 구축하여 학생회가 강화되는데 복무하고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채범기=대내외적인 사안·관점·견해의 차이가 있더라도 동족이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 단결된 모습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경주하고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 저희 기호3번은 출마하였습니다...

▲사회=기호2번과 3번 후보께서 단결에 관해서 언급했는데 그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토론해 보고 싶습니다...

▲채범기=20대 총학은 운동권의 두당파인 NL·CA의 공집합태로서 모범적 진영을 했지만 사상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동족으로 단결해야지 이라는 안입니다...

▲김성규=20대 총학이 출범초기 두당파간의 견합한 이해를 당위론만에 머물렀던 점은 있었으나 이후 학자부를 통한 어느정도 실천과정속에서 대중적으로 검증받은 사실들이 단결의 원칙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이기재=총학은 서로다른 사상이 있더라도 이를 통합단결해야 하고 이는 대중에 의해 실행·인정받습니다. 이를 위해서 민주집중제·공개제의 실현이 필요합니다...

▲윤병현=단결이라는 것은 어떤 정파나 운동권을 위한 단결이 아니라 학부대중들의 자치적 단결을 이끌어 낼때만이 그 의의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본적 뿌리인 과학생회로부터의 단결이 이뤄져야 합니다...

▲이응순=단결은 공동활동속에서 대동단결을 총학에서 도모할때만이 올바른 의미의 단결을 꾀할 수 있습니다. 단 결행위의 지도가 아닌 대중을 위한 대중으로부터의 단결이라고 합니다...

▲이원희=단결에 앞서 중요한 것은 왜 단결해야 하는지에 관해 학부대중이 인식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 봅니다...

▲자주적 총학으로 사회=지금까지 여러정보들의 얘기를 듣고보니 근본적으로 동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하나인것 같습니다...

▲채범기=총학의 기본은 과학생회이고 총학은 각학부대중의 의사를 총체적으로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중의 경우는 물론 학생대표자의 구성을 통한 총학으로의 흡수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병현=총학의 위상은 학부대중의 자주적의식으로부터 일어나는 대표기구라 말할 수 있습니다. 즉 과학생회가 나의 대표기구라는 점을 인정할때 학생회는 강화되고 이러한 총54개의 과학생회가 하나로 통일될때 총학은 대표기구로서 자리를 잡아나갈것입니다...

▲사회=좌편에 제기되었던 학생회체계의 문제점에서 대중 폐지, 여중의 총학인입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문제도 같이 이야기해 주시죠...

▲김성규=조직에 있어 올바른 형태는 「총토이 단결화」라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현 회칙을 보면 총학과 대중이 2중적 관조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대중이 하는 일은 감사및 선거의 역할인데 이러한 역할은 일반적 회체계에 학생대표자의 역할을 강화시키고 특별분과를 두면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원희=대중은 점진적인 해체가 되어야 하고 올해 안에 이를 완결시킬 작정입니다. 여중의 경우는 여성의 권리를 찾고 근본적으로 「여성운동집중제」의 문제로써 출마했다고 볼때 사회혁신의 지에 동참하는 한 자체로서 총학의 한부로서 통합해야 한다고 봅니다...

▲채범기=총학의 기본은 과학생회이고 총학은 각학부대중의 의사를 총체적으로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중의 경우는 물론 학생대표자의 구성을 통한 총학으로의 흡수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병현=총학의 위상은 학부대중의 자주적의식으로부터 일어나는 대표기구라 말할 수 있습니다. 즉 과학생회가 나의 대표기구라는 점을 인정할때 학생회는 강화되고 이러한 총54개의 과학생회가 하나로 통일될때 총학은 대표기구로서 자리를 잡아나갈것입니다...

▲사회=좌편에 제기되었던 학생회체계의 문제점에서 대중 폐지, 여중의 총학인입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문제도 같이 이야기해 주시죠...

▲김성규=조직에 있어 올바른 형태는 「총토이 단결화」라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현 회칙을 보면 총학과 대중이 2중적 관조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대중이 하는 일은 감사및 선거의 역할인데 이러한 역할은 일반적 회체계에 학생대표자의 역할을 강화시키고 특별분과를 두면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원희=대중은 점진적인 해체가 되어야 하고 올해 안에 이를 완결시킬 작정입니다. 여중의 경우는 여성의 권리를 찾고 근본적으로 「여성운동집중제」의 문제로써 출마했다고 볼때 사회혁신의 지에 동참하는 한 자체로서 총학의 한부로서 통합해야 한다고 봅니다...

▲채범기=총학의 기본은 과학생회이고 총학은 각학부대중의 의사를 총체적으로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중의 경우는 물론 학생대표자의 구성을 통한 총학으로의 흡수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병현=총학의 위상은 학부대중의 자주적의식으로부터 일어나는 대표기구라 말할 수 있습니다. 즉 과학생회가 나의 대표기구라는 점을 인정할때 학생회는 강화되고 이러한 총54개의 과학생회가 하나로 통일될때 총학은 대표기구로서 자리를 잡아나갈것입니다...

▲사회=좌편에 제기되었던 학생회체계의 문제점에서 대중 폐지, 여중의 총학인입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문제도 같이 이야기해 주시죠...

▲김성규=조직에 있어 올바른 형태는 「총토이 단결화」라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현 회칙을 보면 총학과 대중이 2중적 관조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대중이 하는 일은 감사및 선거의 역할인데 이러한 역할은 일반적 회체계에 학생대표자의 역할을 강화시키고 특별분과를 두면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원희=대중은 점진적인 해체가 되어야 하고 올해 안에 이를 완결시킬 작정입니다. 여중의 경우는 여성의 권리를 찾고 근본적으로 「여성운동집중제」의 문제로써 출마했다고 볼때 사회혁신의 지에 동참하는 한 자체로서 총학의 한부로서 통합해야 한다고 봅니다...

▲채범기=총학의 기본은 과학생회이고 총학은 각학부대중의 의사를 총체적으로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중의 경우는 물론 학생대표자의 구성을 통한 총학으로의 흡수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규=조직에 있어 올바른 형태는 「총토이 단결화」라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현 회칙을 보면 총학과 대중이 2중적 관조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대중이 하는 일은 감사및 선거의 역할인데 이러한 역할은 일반적 회체계에 학생대표자의 역할을 강화시키고 특별분과를 두면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원희=대중은 점진적인 해체가 되어야 하고 올해 안에 이를 완결시킬 작정입니다. 여중의 경우는 여성의 권리를 찾고 근본적으로 「여성운동집중제」의 문제로써 출마했다고 볼때 사회혁신의 지에 동참하는 한 자체로서 총학의 한부로서 통합해야 한다고 봅니다...

▲채범기=총학의 기본은 과학생회이고 총학은 각학부대중의 의사를 총체적으로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중의 경우는 물론 학생대표자의 구성을 통한 총학으로의 흡수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병현=총학의 위상은 학부대중의 자주적의식으로부터 일어나는 대표기구라 말할 수 있습니다. 즉 과학생회가 나의 대표기구라는 점을 인정할때 학생회는 강화되고 이러한 총54개의 과학생회가 하나로 통일될때 총학은 대표기구로서 자리를 잡아나갈것입니다...

▲사회=좌편에 제기되었던 학생회체계의 문제점에서 대중 폐지, 여중의 총학인입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문제도 같이 이야기해 주시죠...

▲김성규=조직에 있어 올바른 형태는 「총토이 단결화」라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현 회칙을 보면 총학과 대중이 2중적 관조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대중이 하는 일은 감사및 선거의 역할인데 이러한 역할은 일반적 회체계에 학생대표자의 역할을 강화시키고 특별분과를 두면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원희=대중은 점진적인 해체가 되어야 하고 올해 안에 이를 완결시킬 작정입니다. 여중의 경우는 여성의 권리를 찾고 근본적으로 「여성운동집중제」의 문제로써 출마했다고 볼때 사회혁신의 지에 동참하는 한 자체로서 총학의 한부로서 통합해야 한다고 봅니다...

▲채범기=총학의 기본은 과학생회이고 총학은 각학부대중의 의사를 총체적으로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중의 경우는 물론 학생대표자의 구성을 통한 총학으로의 흡수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병현=총학의 위상은 학부대중의 자주적의식으로부터 일어나는 대표기구라 말할 수 있습니다. 즉 과학생회가 나의 대표기구라는 점을 인정할때 학생회는 강화되고 이러한 총54개의 과학생회가 하나로 통일될때 총학은 대표기구로서 자리를 잡아나갈것입니다...

▲사회=좌편에 제기되었던 학생회체계의 문제점에서 대중 폐지, 여중의 총학인입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문제도 같이 이야기해 주시죠...

▲김성규=조직에 있어 올바른 형태는 「총토이 단결화」라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현 회칙을 보면 총학과 대중이 2중적 관조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대중이 하는 일은 감사및 선거의 역할인데 이러한 역할은 일반적 회체계에 학생대표자의 역할을 강화시키고 특별분과를 두면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원희=대중은 점진적인 해체가 되어야 하고 올해 안에 이를 완결시킬 작정입니다. 여중의 경우는 여성의 권리를 찾고 근본적으로 「여성운동집중제」의 문제로써 출마했다고 볼때 사회혁신의 지에 동참하는 한 자체로서 총학의 한부로서 통합해야 한다고 봅니다...

▲채범기=총학의 기본은 과학생회이고 총학은 각학부대중의 의사를 총체적으로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중의 경우는 물론 학생대표자의 구성을 통한 총학으로의 흡수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규=조직에 있어 올바른 형태는 「총토이 단결화」라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현 회칙을 보면 총학과 대중이 2중적 관조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대중이 하는 일은 감사및 선거의 역할인데 이러한 역할은 일반적 회체계에 학생대표자의 역할을 강화시키고 특별분과를 두면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원희=대중은 점진적인 해체가 되어야 하고 올해 안에 이를 완결시킬 작정입니다. 여중의 경우는 여성의 권리를 찾고 근본적으로 「여성운동집중제」의 문제로써 출마했다고 볼때 사회혁신의 지에 동참하는 한 자체로서 총학의 한부로서 통합해야 한다고 봅니다...

▲채범기=총학의 기본은 과학생회이고 총학은 각학부대중의 의사를 총체적으로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중의 경우는 물론 학생대표자의 구성을 통한 총학으로의 흡수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병현=총학의 위상은 학부대중의 자주적의식으로부터 일어나는 대표기구라 말할 수 있습니다. 즉 과학생회가 나의 대표기구라는 점을 인정할때 학생회는 강화되고 이러한 총54개의 과학생회가 하나로 통일될때 총학은 대표기구로서 자리를 잡아나갈것입니다...

▲사회=좌편에 제기되었던 학생회체계의 문제점에서 대중 폐지, 여중의 총학인입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문제도 같이 이야기해 주시죠...

▲김성규=조직에 있어 올바른 형태는 「총토이 단결화」라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현 회칙을 보면 총학과 대중이 2중적 관조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대중이 하는 일은 감사및 선거의 역할인데 이러한 역할은 일반적 회체계에 학생대표자의 역할을 강화시키고 특별분과를 두면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원희=대중은 점진적인 해체가 되어야 하고 올해 안에 이를 완결시킬 작정입니다. 여중의 경우는 여성의 권리를 찾고 근본적으로 「여성운동집중제」의 문제로써 출마했다고 볼때 사회혁신의 지에 동참하는 한 자체로서 총학의 한부로서 통합해야 한다고 봅니다...

▲채범기=총학의 기본은 과학생회이고 총학은 각학부대중의 의사를 총체적으로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중의 경우는 물론 학생대표자의 구성을 통한 총학으로의 흡수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병현=총학의 위상은 학부대중의 자주적의식으로부터 일어나는 대표기구라 말할 수 있습니다. 즉 과학생회가 나의 대표기구라는 점을 인정할때 학생회는 강화되고 이러한 총54개의 과학생회가 하나로 통일될때 총학은 대표기구로서 자리를 잡아나갈것입니다...

▲사회=좌편에 제기되었던 학생회체계의 문제점에서 대중 폐지, 여중의 총학인입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문제도 같이 이야기해 주시죠...

▲김성규=조직에 있어 올바른 형태는 「총토이 단결화」라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현 회칙을 보면 총학과 대중이 2중적 관조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대중이 하는 일은 감사및 선거의 역할인데 이러한 역할은 일반적 회체계에 학생대표자의 역할을 강화시키고 특별분과를 두면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원희=대중은 점진적인 해체가 되어야 하고 올해 안에 이를 완결시킬 작정입니다. 여중의 경우는 여성의 권리를 찾고 근본적으로 「여성운동집중제」의 문제로써 출마했다고 볼때 사회혁신의 지에 동참하는 한 자체로서 총학의 한부로서 통합해야 한다고 봅니다...

▲채범기=총학의 기본은 과학생회이고 총학은 각학부대중의 의사를 총체적으로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중의 경우는 물론 학생대표자의 구성을 통한 총학으로의 흡수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규=조직에 있어 올바른 형태는 「총토이 단결화」라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현 회칙을 보면 총학과 대중이 2중적 관조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대중이 하는 일은 감사및 선거의 역할인데 이러한 역할은 일반적 회체계에 학생대표자의 역할을 강화시키고 특별분과를 두면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원희=대중은 점진적인 해체가 되어야 하고 올해 안에 이를 완결시킬 작정입니다. 여중의 경우는 여성의 권리를 찾고 근본적으로 「여성운동집중제」의 문제로써 출마했다고 볼때 사회혁신의 지에 동참하는 한 자체로서 총학의 한부로서 통합해야 한다고 봅니다...

▲채범기=총학의 기본은 과학생회이고 총학은 각학부대중의 의사를 총체적으로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중의 경우는 물론 학생대표자의 구성을 통한 총학으로의 흡수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병현=총학의 위상은 학부대중의 자주적의식으로부터 일어나는 대표기구라 말할 수 있습니다. 즉 과학생회가 나의 대표기구라는 점을 인정할때 학생회는 강화되고 이러한 총54개의 과학생회가 하나로 통일될때 총학은 대표기구로서 자리를 잡아나갈것입니다...

▲사회=좌편에 제기되었던 학생회체계의 문제점에서 대중 폐지, 여중의 총학인입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문제도 같이 이야기해 주시죠...

▲김성규=조직에 있어 올바른 형태는 「총토이 단결화」라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현 회칙을 보면 총학과 대중이 2중적 관조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대중이 하는 일은 감사및 선거의 역할인데 이러한 역할은 일반적 회체계에 학생대표자의 역할을 강화시키고 특별분과를 두면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원희=대중은 점진적인 해체가 되어야 하고 올해 안에 이를 완결시킬 작정입니다. 여중의 경우는 여성의 권리를 찾고 근본적으로 「여성운동집중제」의 문제로써 출마했다고 볼때 사회혁신의 지에 동참하는 한 자체로서 총학의 한부로서 통합해야 한다고 봅니다...

▲채범기=총학의 기본은 과학생회이고 총학은 각학부대중의 의사를 총체적으로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중의 경우는 물론 학생대표자의 구성을 통한 총학으로의 흡수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병현=총학의 위상은 학부대중의 자주적의식으로부터 일어나는 대표기구라 말할 수 있습니다. 즉 과학생회가 나의 대표기구라는 점을 인정할때 학생회는 강화되고 이러한 총54개의 과학생회가 하나로 통일될때 총학은 대표기구로서 자리를 잡아나갈것입니다...

▲사회=좌편에 제기되었던 학생회체계의 문제점에서 대중 폐지, 여중의 총학인입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문제도 같이 이야기해 주시죠...

▲김성규=조직에 있어 올바른 형태는 「총토이 단결화」라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현 회칙을 보면 총학과 대중이 2중적 관조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대중이 하는 일은 감사및 선거의 역할인데 이러한 역할은 일반적 회체계에 학생대표자의 역할을 강화시키고 특별분과를 두면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원희=대중은 점진적인 해체가 되어야 하고 올해 안에 이를 완결시킬 작정입니다. 여중의 경우는 여성의 권리를 찾고 근본적으로 「여성운동집중제」의 문제로써 출마했다고 볼때 사회혁신의 지에 동참하는 한 자체로서 총학의 한부로서 통합해야 한다고 봅니다...

▲채범기=총학의 기본은 과학생회이고 총학은 각학부대중의 의사를 총체적으로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중의 경우는 물론 학생대표자의 구성을 통한 총학으로의 흡수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규=조직에 있어 올바른 형태는 「총토이 단결화」라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현 회칙을 보면 총학과 대중이 2중적 관조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대중이 하는 일은 감사및 선거의 역할인데 이러한 역할은 일반적 회체계에 학생대표자의 역할을 강화시키고 특별분과를 두면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원희=대중은 점진적인 해체가 되어야 하고 올해 안에 이를 완결시킬 작정입니다. 여중의 경우는 여성의 권리를 찾고 근본적으로 「여성운동집중제」의 문제로써 출마했다고 볼때 사회혁신의 지에 동참하는 한 자체로서 총학의 한부로서 통합해야 한다고 봅니다...

▲채범기=총학의 기본은 과학생회이고 총학은 각학부대중의 의사를 총체적으로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중의 경우는 물론 학생대표자의 구성을 통한 총학으로의 흡수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병현=총학의 위상은 학부대중의 자주적의식으로부터 일어나는 대표기구라 말할 수 있습니다. 즉 과학생회가 나의 대표기구라는 점을 인정할때 학생회는 강화되고 이러한 총54개의 과학생회가 하나로 통일될때 총학은 대표기구로서 자리를 잡아나갈것입니다...

▲사회=좌편에 제기되었던 학생회체계의 문제점에서 대중 폐지, 여중의 총학인입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문제도 같이 이야기해 주시죠...

▲김성규=조직에 있어 올바른 형태는 「총토이 단결화」라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현 회칙을 보면 총학과 대중이 2중적 관조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대중이 하는 일은 감사및 선거의 역할인데 이러한 역할은 일반적 회체계에 학생대표자의 역할을 강화시키고 특별분과를 두면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원희=대중은 점진적인 해체가 되어야 하고 올해 안에 이를 완결시킬 작정입니다. 여중의 경우는 여성의 권리를 찾고 근본적으로 「여성운동집중제」의 문제로써 출마했다고 볼때 사회혁신의 지에 동참하는 한 자체로서 총학의 한부로서 통합해야 한다고 봅니다...

▲채범기=총학의 기본은 과학생회이고 총학은 각학부대중의 의사를 총체적으로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중의 경우는 물론 학생대표자의 구성을 통한 총학으로의 흡수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병현=총학의 위상은 학부대중의 자주적의식으로부터 일어나는 대표기구라 말할 수 있습니다. 즉 과학생회가 나의 대표기구라는 점을 인정할때 학생회는 강화되고 이러한 총54개의 과학생회가 하나로 통일될때 총학은 대표기구로서 자리를 잡아나갈것입니다...

▲사회=좌편에 제기되었던 학생회체계의 문제점에서 대중 폐지, 여중의 총학인입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문제도 같이 이야기해 주시죠...

▲김성규=조직에 있어 올바른 형태는 「총토이 단결화」라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현 회칙을 보면 총학과 대중이 2중적 관조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대중이 하는 일은 감사및 선거의 역할인데 이러한 역할은 일반적 회체계에 학생대표자의 역할을 강화시키고 특별분과를 두면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원희=대중은 점진적인 해체가 되어야 하고 올해 안에 이를 완결시킬 작정입니다. 여중의 경우는 여성의 권리를 찾고 근본적으로 「여성운동집중제」의 문제로써 출마했다고 볼때 사회혁신의 지에 동참하는 한 자체로서 총학의 한부로서 통합해야 한다고 봅니다...

▲채범기=총학의 기본은 과학생회이고 총학은 각학부대중의 의사를 총체적으로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중의 경우는 물론 학생대표자의 구성을 통한 총학으로의 흡수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응순=민주총장·교과위 정취사항은 상호 밀접한 연관을 갖고 이러한 학자부에 관한 모든 것은 민주총장선거로 귀결될 것입니다. 학자부의 본질은 교수와 학생이 주인되는 것입니다. 즉 「교육권확보」라 말할수있습니다. 자본주의 모순구조에서 파생된 대학에서의 총장구조·인적구조·장출론적 민주총장선거의 올바른 결정을 위하여 그것이 교육권확보로 나아갈때 학자부는 이복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성규=학자부의 기본적 성격은 자주적이고 대중투쟁적 성격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총장선거에 있어서도 자주적으로 모든 대학인이 참가하여 교수·학생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대학을 구성하는 모든 사람이총장선거에 참가해야 합니다. 한편 교과위의 의의를 따진다면 진보적인 학문·사상의 자유에 있다고 할수있습니다. 아울러 교과위투쟁은 학문적영역의 차이를 감안하여 교과위내외로 출마를 할 것입니다...

▲이응순=저는 지난해 사과대교과위원직을 했습니다. 아쉬운 점은 교과위가 건설됐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채우지 못한점, 조직역량의 미비로 대중적합성이 실현되지 못한 상태에서 지난해 교과위내용이 일부 수정된점입니다...

▲이응순=저는 지난해 사과대교과위원직을 했습니다. 아쉬운 점은 교과위가 건설됐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채우지 못한점, 조직역량의 미비로 대중적합성이 실현되지 못한 상태에서 지난해 교과위내용이 일부 수정된점입니다...

▲김성규=세후보 모두 노태우 불신투쟁에 합의하는 것 같은데 그러한 투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조직적대안이 필요합니다. ▲사회=기호2번 후보의 말씀에 공감하는지요. 앞으로 선거유세때 뭘 보고 싶은 것들인지 이차로 시간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리=이민성기자>

참석자 기호1번(正)이 기 재 (副)이 응 순 기호2번(正)김 성 규 (副)윤 병 현 기호3번(正)채 범 기 (副)이 원 희 사회=김 일 <분사 취재부장> 일 시=1989년3월18일 장 소=本社회의실



기호1번 대중으로부터 비판·평가받는 회체계 마련 운동권만의 단결아닌 대중적 단결 요구돼 기호2번 기호3번 대학,현실참여와 진리탐구의 장으로 활용

▲김성규=조직에 있어 올바른 형태는 「총토이 단결화」라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현 회칙을 보면 총학과 대중이 2중적 관조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대중이 하는 일은 감사및 선거의 역할인데 이러한 역할은 일반적 회체계에 학생대표자의 역할을 강화시키고 특별분과를 두면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원희=대중은 점진적인 해체가 되어야 하고 올해 안에 이를 완결시킬 작정입니다. 여중의 경우는 여성의 권리를 찾고 근본적으로 「여성운동집중제」의 문제로써 출마했다고 볼때 사회혁신의 지에 동참하는 한 자체로서 총학의 한부로서 통합해야 한다고 봅니다...

▲채범기=총학의 기본은 과학생회이고 총학은 각학부대중의 의사를 총체적으로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중의 경우는 물론 학생대표자의 구성을 통한 총학으로의 흡수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병현=총학의 위상은 학부대중의 자주적의식으로부터 일어나는 대표기구라 말할 수 있습니다. 즉 과학생회가 나의 대표기구라는 점을 인정할때 학생회는 강화되고 이러한 총54개의 과학생회가 하나로 통일될때 총학은 대표기구로서 자리를 잡아나갈것입니다...

무관심 (An advertisement for a product or service, featuring a logo and text.)

우리들은 "뚝" 클라이머 (An advertisement for Crown Beer, featuring a group of people climbing a mountain and the brand name.)

우리의 뜨거운 합성을 끝없는 메아리에 담아 널리 널리 온 누리에 우리들의 젊음을 실어 보냈다.

가벼운 마음으로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이마에 맺힌 땀을 씻어내고 배낭과 자일을 추스리면서 우리의 정간행은 시작되었다. 산이 있기에 산에 오르는 말로리경의 깊은 의미를 굳이 헤아리지 않아도 아름답고 수려한 이 땅에서 호연지기를 기르고 싶어 산악부에 가입했던 우리들의 클라이머들. 절용형의 우렁찬 구명소리에 일사불란한 준비운동은 마치고 한가닥 자일에 젊음을 불사르면서 우리의 안락등반은 시작되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오르내리며 정상은 가까워지고 서로 연결된 자일에서 느껴지는 선배님들의 따뜻한 정은 발 아래 펼쳐지는 대자연의 파노라마와 함께 무언가 형언하기 어려운 가슴쿵쿵한 감동이었다. 정상위에 모여서 간단한 회합을 갖고 모두 힘차게 써글구조를 외쳐보았다. 케이-악 우리의 뜨거운 합성을 끝없는 메아리에 담아 널리 널리 온 누리에 우리들의 젊음을 실어 보냈다. 우리의 메아리는 북악골을 넘고 도봉산을 넘어 민족의 영산 백두산까지 힘차게 울려 퍼지리라. 젊음의 폐기와 낭만을 하얀겨울의 신선한 크라운맥주와 함께 나누며 승오의 유머와 준승이의 묵직한 바리톤에 하산길의 여유를 찾는다. 젊음의 뜨거운 가슴을 붉은 다이아몬드가 빛나는 크라운맥주로 시원히 적셔주면서 자! 하나기엔 우리의 젊음을 위하여 부러보. K대학교산악부2년 장 문 수



